

警心歌



[해제]

조선 후기 전북 태인에서 살았던 성은(城隱) 김경흠(金景欽:1815~1880)이 지은 도덕가사(道德歌辭)이다. 같은 성격의 가사인 <삼재도가(三才道歌)>, <불효탄(不孝歎)>과 함께 필사본 가집인 『가사(歌詞)』에 수록된 노래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이 작품은 작자의 또 다른 작품인<삼재도가((三才道歌)>, <불효탄(不孝歎)>과 함께 작자의 문집 『성은처사김공유고(城隱處士金公遺稿)』에도 수록되어 있다. 여기서 두 이본을 대비해 보면 내용상의 차이는 없으나, 『성은유고』에 비해 『가사』에는 표기상 다소의 차이와 더불어 일부 누락된 자구가 보인다. 이로 보아 『가사』에 필사한 것은 『성은유고』 본을 다시 옮겨 쓴 것으로 생각된다. 작품의 내용은 '마음을 깨우치는 노래(警心歌)'라는 제목의 뜻 그대로, 청춘의 소년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옛 성인의 도를 이어받아 인륜 도덕에 힘을 쓰고, 제 도리에 충실하며 본분을 지켜, 험난한 세상을 후회 없이 인간답게 살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형태상 음수율은 3.4조와 4.4조가 혼용되어 있으며, 길이는 전체 227구이다.

[원문]

不孝罪로 꾸지시며 怒拳으로 打頰하고
 怒足으로 蹴胸하니 德分제발 哀乞흔들
 衆口 難防이라
 敗家亡身 절노되야 以力眠人 외인지물
 春雪치 녹아지니 寒廚의 저妻子는
 불구며 自歎하고 洞內的 외닌老少
 目笑하야 조롱한다
 改過遷善 싱각흔들 지은죄를 버실소야
 白圭의 거문씩는 갈면다시 히련이와
 닉몸의 지은허물 갈까망 전업다
 警心歌

어와青春 少年덜아 이닌訓戒 드러서러
 天地玄黃 싱간후에 最靈最貴 사람으로
 ㅎ닐님께 命을바다 四肢百體 無病흔은
 스람마닥 다가초와 不爲貪이 되엇거늘
 富貴貧賤 돌나시며 君子小人 돌나시니
 그엇지 모를손냐 마암으로 씩쳐서라
 얼굴은 體가되고 마암은 用이되야
 사룸의 百萬事가 用心되로 是非엇다
 虛靈흔 이닌마암 一身의 太極으로
 陰陽이 ㅎ노여서
 ㅎ닐갓치 널너시이 日月갓치 불가시며
 저울각치 輕重잇서 堯舜의 道를ㅎ면
 堯舜이 되련이와 桀紂의 道를ㅎ며
 그아이 桀紂되며 孔孟의 道를ㅎ면

孔孟이 되려니와 盜跖의 道를 하면
 그아이 盜跖인가 니두서이 심각하면
 方寸니 나노여서 千里에 머러시며
 楚越이 되야시니 니런일로 볼씩시면
 그아이 두려우ㄱ 조심하야 가져시며
 公경하야 자바셔라
 天地間의 너른法이 一身에 다갓초와
 三才에 참여하고 五倫으로 길을차자
 八卦로 數를두어 九宮으로 버려시니
 丹田으로 터를승고 赤室을 지어니뎡
 一五行 기진材木 二五事 줄을맞쳐
 八政으로 立柱하고 四五紀 흔늘로
 五皇極 上梁연져 中宮이 方正토다
 六三德 門을굳고 七稽疑 나리연서
 仁義禮智 울을막고 八庶徵을 살펴보니
 四面이 바른中の 風雨暑避 하도다
 九五福은 嚮用하고 六殛을 물니첫다
 前後로 시문松竹
 君子節을 지켜시며
 左右로 시문靈竹 向日丹忠 본을보며
 文糧月窟 조은집의 守分하고 훈사잇서
 天理을 심각하고 人事를 슬피더니
 詩興이 忽狀키로 書案의 拭인經傳
 卷卷이 閱覽하고 字字이 讀誦하니
 惟微흔 저道心이 油然히 發越하야
 禹湯文武는 今世의 되얏는듯 孔孟顔會은
 左右로 되섯는듯 千秋의 智仁君子
 濟濟히 와계신듯 百代의 忠孝烈士
 彬彬히 오시는듯
 儼然흔 것氣像이 너의朋友 되얏는듯
 肝膽이 相照하야 晝夜오로 答論하이
 萬古의 顯顯遺跡 眼前的 삼삼하고
 百代에 英雄烈士 胷中の 羅列하니
 道心이 貫通하고 文瀾이 發越하니
 五老峯은 부시되고 三湘江으로 硯水삼아
 如青天一 大紙에 前後聖의 千言萬語
 났낫치 그려시여 腹中の 씩엿는듯
 一以貫之 相傳道을 내마암의 어덧는듯

學海엇 뒤논龍이 구름을 어더시며
 講樹의 習飛鳥가 놀기어든 거이로다
 輕寶로 어든마암 骨髓의 刻을하야
 放心하야 일치말고 조심하야 자바셔라
 匹夫의 가진뜻슬 威武라도 어렵거든
 大丈夫 가진마암 제누라셔 아실소야
 金銀玉帛 조타흔들 이니마암 박솔소며
 萬鍾祿이 조타흔들 이니마암 박솔손야
 至寶로 어든마암 체누라셔 奪取하며
 다희道理 다투하면 誰敢히 慢侮하리
 千鍾祿이 업셔시되 朝夕計活 근심마라
 心經의 비슬갈고 智水의 물을딛면
 水旱之災 업셔시니 野의 가든벗과
 南陽 가든君子 흥고와 作隣하니
 後稷의 本業耕種 晝夜로 答論하니
 造化로 심어가며 經論으로 미아가면
 人力싸라 歲登하이 食農當祿 더욱조타
 靑雲을 원치마라 宦海가 갑퍼시니
 沂水의 목욕하고 詠而歸 도라올제
 六七冠童 닳라시니 勸學當政 다퉨조타
 才操잇다 자랑마라 有若無 實若虛면
 德勝才가 될거시이 守拙當能 하나니라
 外飾外華 길거마라
 乘肥馬 衣輕裘을 識者의 所非되이
 安步하면 當車니라 補陰服藥 길거마라
 獨處當藥 無病토다 家力이 不膽키든
 나지로논 治産하고 밤으로논 글일거
 董子兒寬 본바드면 兩全策이 될거시오
 平生之計 되나니라 百年의 ㅎ는쇠는
 種德을 ㅎ라하니 농의집 根本長短
 守口如瓶 막아두고 다퉨집의 글은일은
 防意如城 막아두고 淫聲을 드른귀는
 潁川水의 시여오며 惡色을 본던눈안
 午日睡로 감마두라 蜀道가 어렵되도
 世道가 더어렵고 羊腸이 험타하되
 人腸이 더험하니 如臨深淵 조심하야
 中道로 가거셔라 修身及家 다하후는
 推及他人 ㅎ거시오 餘及子孫 ㅎ거시니

警心歌

德潤身이 聖이로다 마암으로 ㅎ는修德
貧富問의 다갓트니 高遠難行 아니어든
언의누기 못홀소냐 照心鏡을 손의들고
世上을 빗쳐보니 禽獸行實 間間이오
蠻貊놈이 居半이라 好酒好色 淫亂하고
濫衣用 放蕩하야 傳家祖業 다업세고
남의심을 먹어간다 好衣好食 翫된놈이
守貧守分 제홀손야 제食力을 제못하고
놈의짐물 도적한다 晝思夜度 싱각하야
儀秦의 口辯으로 空中樓閣 지어넌니
足以飾非 能는토다 非理好訟 아신지물
納賂附同 有勢하야 威脅殘民 참혹하고
侵魚百姓 寒心토다 皇天이 눈파시되
듯기는 나차시니 莫顯隱이 되야놀
수문죄를 모를소냐 御使영문 顯露하야
囚禁中の 싸저우나 笞杖棍杖 마진하에
鳴鼓出送 貽笑하고 着械下獄 移囚하
列邑各官 守令들은
嚴治하라 下令하고 駟從軍奴 使令들은
左右前後 打頰하니 受杖傷處 아픈中の
辱及先塋 참혹하다 人間世上 자라나서
幼而不學 所以致오 學而不成 所以致오
行而失心 所以致라 怨天尤 人홀소냐
自怨自咎 제마암이라 너희도 네마암자바
後悔치 마라셔라 나도不學 無識中の
慨然히 싱각다가 망녕도이 적어넌니
웃지말고 보아셔라

勸學歌

天地도 無窮하고 日月도 長久하다
어자타 우

[현대역]

불효 죄로 꾸짖으며,
화가 난 주먹으로 그 사람 뺨을 치고,
(*怒拳打頰 : 노권 타협)
성이 난 발길로써 가슴을 차대니,
(*怒足蹴胸 : 노족 축흉)
제발 덕분 사정하며 애걸한들,
못 사람의 대드는 말 막기는 어렵도다.
(*衆口難防 : 중구 난방)
집안 재산 다 없애고 몸 망침도 절로 되어,
(*敗家亡身 : 패가 망신)
남을 어지럽혀 억지로 모인 재물,
(*以力眠人 : 이력면인)
봄눈처럼 녹아지니,
찬 부역의 저 처자는
잘못을 추궁하며 스스로 한탄하고,
동내 모인 남녀노소
눈짓으로 조롱한다.
개과천선 하겠다고 이제야 생각한들
지은 죄를 벗을쏘냐.
맑은 옥에 검은 때는
갈면 다시 희려니와,
내 몸에 지은 허물
씻어질까 가망 없다.
경심가
이와 청춘 소년들아
이내 훈계 들어보라
천지현황 생긴 후에
최령최귀 사람으로
하느님께 명을 받아
사지백체 무병함은
사람마다 다 갖추어
탐하지 않게 되었거늘
부귀빈천 달랐으며
군자소인 달랐으니
그 어찌 모를쏘냐
마음으로 깨쳤어라
얼굴은 모양이 되고

마음은 쓰임이 되어
사람의 온갖 일이
용심하는 대로 시비였다
허령한 이내 마음
일신의 태극으로
음양이 나뉘어서
하늘같이 널렸으니
일월같이 밝았으며
저울같이 경중 있어
요순의 도를 하면
요순이 되려니와
걸주의 도를 하면
그 아니 걸주되며
공맹의 도를 하면
공맹이 되려니와
도척의 도를 하면
그 아이 도척인가
이 두세 가질 생각하면
방촌이 나뉘어서
천리에 멀어지며
초와 월이 되었으니
이런 일로 불작시면
그 아니 두려운가
조심하여 가지시며
공경하여 잡으시라
천지간의 넓은 법을
일신에 다 갖추어
삼재에 참여하고
오륜으로 길을 찾아
팔괘로 수를 두어
구궁으로 별였으니
단전으로 터를 삼고
적실을 지어내되
일오행 가진 재목
이오사 줄을 맞춰
팔정으로 입주하고
사오기 길한 날로
오황극 상량 없어

중궁이 방정토다
육삼덕 문을 달고
칠계의 나래 엮어
인의예지 울을 막고
팔서징을 살펴보니
사면이 바른 중에
풍우한서 피하도다
. (※風雨暑: 『城隱遺稿』에는 風雨寒暑로 되어 있음)
구오복은 향용하고
육극을 물리쳤다
전후로 심은 송죽
군자절을 지켰으며
좌우로 심은 영초
향일단총 본을 보며
천근월굴 좋은 집에
분수 지켜 혼자 있어
천리를 생각하고
인사를 살피더니
시흥이 흥연기로
서안의 쌀인 경전
책마다 열람하고
글자마다 독송하니
유미한 저 도심이
유연히 발월하여
우와 탕과 문과 무는
금세에 뵈었는 듯
공자 맹자 안회 증자는
좌우로 모셨는 듯
천추의 지인 군자
제제히 와 계신 듯
백대의 충효 열사
빈빈히 오시는 듯
엄연한 그 기상이
나의 봉우 되었는 듯
간담이 상조하여
밤낮으로 답론하니
만고의 빛난 유적
눈앞에 삼삼하고

백대에 영웅 열사
가슴에 나열하니
도심이 관통하니
문란이 발월하니
오로봉은 붓이 되고
삼상강으로 벼룻물 삼아
하늘같은 큰 종이에
전후 성인의 천언만어
날날이 그려내어
복중에 쌓았는 듯
일이관지 상전하는 도를
내 마음에 얻었는 듯
학해를 뛰는 용이
구름을 얻었으며
강수의 습비조가
날개 얻은 격이로다
경보로 얻은 마음
골수의 각을 하여
방심하여 잃지 말고
조심하여 잡으시라
필부의 가진 뜻을
위무라도 어렵거든
대장부 가진 마음
제 뉘라서 아실쏘냐
금은옥백 즐다한들
이내 마음 바꿀 바며
만종록이 즐다한들
이내 마음 바꿀쏘냐
자보로 얻은 마음
제 뉘라서 탈취하며
내 할 도리 내 다 하면
누가 감히 만모하리
천종록이 없었으되
조석 생계 근심 마라
심경의 발을 갈고
지수의 물을 대면
수한지재 없었으니
화야에서 갈던 벗과

(※ 野: 『城隱遺稿』에는 華野로 되어 있음)

남양에서 갈던 군자
함께 와 이웃되니
후직의 본업 경중
주야로 답론하니
조화로 심어가며
경론으로 매오가면
인력따라 세등하니
식농당록 더욱 좋다
청운을 원치 마라
환해가 깊었으니
기수에 목욕하고
옹조리며 돌아올 제
육칠 관동 따랐으니
권학당정 나아 좋다
재조 있다 자랑 마라
유약무하고 실약허하면
덕승재가 될 것이니
수출당능 하느니라
외식외화 즐겨 마라
승비마 의경구를
식자의 소비되어
안보하면 당거니라
보음복약 즐겨 마라
독처당약 무병토다
가력이 불섬커든
낮으로는 치산하고
밤으로는 글을 읽어
동자 아관을 본받으면
양전책이 될 것이요
평생지계 되느니라
백년을 기하는 꾀는
종덕을 하라 하니
남의 집 근본 장단
수구여병 막아두고
내 집의 그른 일은
방의여성 막아두고
음성을 들은 귀는

영천수에 씻어 오며

(※ 潁川水: 潁川水의 오기)

악색을 보던 눈은

천일수로 감아두라

(※ 午日睡: 『城隱遺稿』에는 午日睡로 되어 있음)

촉도가 어렵다 해도

세도가 더 어렵고

양장이 험하다 하되

인장이 더 험하니

심연에 임한 듯 조심하야

중도로 가느니라

수신급가 다한 후는

추급타인 할 것이요

여급자손 할 것이니

덕윤신이 성이로다

마음으로 하는 수덕

빈부간에 다 같으니

고원난행 아니거든

어느 누가 못할소냐

조심경을 손에 들고

세상을 비취 보니

금수 행실 간간이요

만맥놈이 거반이라

호주호색 음란하고

남의남용 방탕하여

(※ 濫衣用: 『城隱遺稿』에는 濫衣濫用으로 되어 있음)

전가조업 다 없애고

남 의심을 먹어간다

호의호식 버릇된 놈이

수빈수분 제 할소냐

제 식력을 제 못하고

남의 재물 도둑질한다.

주사야탁 생각하야

장의 소진의 구변으로

(※ 儀秦: 張儀와 蘇秦)

공중누각 지어내니

족이식비 능란토다

비리호승 아신 재물

납뢰부동 유세하여
위협잔민 참혹하고
침어백성 한심토다
황천이 높았으되
듣기는 낮았으니
막현은이 되었거늘

(※莫顯隱：莫顯乎微 莫見乎隱)

숨은 죄를 모를 쏘냐
어사 영문 현로하여
수금 중에 빠졌구나
태장 곤장 맞은 후에
명고 출송 이소하고
착계 하옥 이수하니
열읍 각관 수령들은
엄치하라 하령하고
구종 군노 사령들은
좌우 전후 타협하니
수장 상처 아픈 중에
욕급선영 참혹하다
인간 세상 자라나서
어려서 배우지 못한 소치요
배우고도 이루지 못한 소치요
(이루고도 행하지 못한 소치요)

(成而不行 所以致오：『城隱遺稿』에는 있으나, 『歌訶』에는 빠져 있음)

행하고도 마음을 상한 소치라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탓을 하랴
스스로 원망하고 탓함이 제 마음이라
너희도 네 마음 잡아
후회치 말자구나
나도 불학 무식 중에
개연히 생각다가
웃지 말고 보아라

본자료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국가DB사업으로 구축된 재산입니다.
담양군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 이 문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제, 전송, 배포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